

## 왜 ‘언로’가 열려야 하는가?

김동춘

P 목사님,

목사님은 『조선일보』를 통해 제가 “깡패 방식의 언론 운동 필요”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고 개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지요. 목사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질책과 더불어, “왜 그렇게 『조선일보』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가? 『조선일보』가 그래도 현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는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른바 진보적 학자 혹은 시민 단체들이 사회를 계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상으로 나름대로 소명을 했지만, 짧은 시간에 제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면을 통해 미진했던 저의 답변을 보완해서 다시 전하겠습니다.

저의 언론재단 워크숍에서 한 강연의 실제 내용과 전체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매체에서 어느 정도 소개한 바도 있고,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결과가 나왔으며, 당시 참가자의 증언을 수집하여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저에 대한 이미지, 『조선일보』의 역할, 지식인과 시민 단체에 대하여 목사님이 갖고 계신 모든 생각들은 주로 『조선일보』라는 유리창과

조명등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론재단에서 제가 강연한 내용도 유리창과 조명등의 하나인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양심적인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목사님과 같은 분들에게 그러한 생각과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었다는 그 사실과 그것이 갖는 위험성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항의 전화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나 특정 현상에 대한 판단을 결정적으로 달리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새삼 전율할 정도의 심각성을 느꼈고,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 절감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선일보』의 1면에 뽑은 “깡패 방식”, “윤전기 타격”이라는 표현에 놀라고 흥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일보』가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 운동 진영이나 진보적 지식인에 대해 그러한 느낌을 갖도록 의도한 것이 먹혀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태여 ‘의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워크숍 토론이 얼마든지 달리 보도되거나 또한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발언 내용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2, 3면의 하단에 실릴 수도 있거나,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를 제외한 다른 일간 신문들처럼 아예 기사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과연 제가 발언했던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그 기사를 작성했는지 의문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재단의 워크숍에서 제가 두 시간 강의한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그 워크숍에서 다른 발표자들이 발언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초가 무엇인지, 그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오직 ‘깡패’라는 자극적인 표현만이 워크숍의 모든 것인 양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해 진실은 얼마든지 곡해될 수 있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전도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주가 쓰레기더미에 묻힐 수 있고, 쓰레기더미가 진주를 억지로 묻어 버려 도저히 우리가 진주를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생각들이 언론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민들의 별다른 관심거리가 아닌 것이지만 언론 기관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여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영국의

다이나나 비 사망에 대해서는 온 세계를 슬퍼하게 만들 수 있어도, 르완다의 수백만의 학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넘어가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매체입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면 전혀 달리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나 현상이 오직 이미지로만 전달되어 우리의 뇌리에 박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일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언론은 가공할 만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물론 특정 기사의 취사선택, 특정 내용의 확대 축소는 언론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이윤 추구를 지상 목표로 하는 기업이나 권력 장악을 최종 목표로 하는 정치 단체가 아닌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 내용은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가급적 사실에 충실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일방적 보도를 할 경우에는 반론의 기회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이 전면 상단에 크게 보도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발언자나 주변 참가자의 증언을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조선일보』는 가장 자극적인 몇 문구를 확대 보도함으로써 김대중 정부 혹은 시민 단체의 역할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독자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언론재단이 지원을 한 이 워크숍이 언론재단이 한 해 실시하는 50여 건 정도의 연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또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실시해 온 연수라는 점도 밝히지 않았으며, 그 전에는 자기 회사 사원 컴퓨터 교육을 위해 이 공적 기관의 돈을 사금고처럼 사용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언론재단이 김대중 정부 언론 개혁의 선봉대 역할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파렴치한 사실 왜곡이라 할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언론 운동가들이나 진보적 학자들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무지막직한 존재들, 김대중 정부의 ‘홍위병’, 『조선일보』 죽이기로 독기를

품은 비타협적인 인간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시민 운동의 도덕성에 딱칠을 하였으며, 부패·부정으로 얼룩진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비판 언론'으로 포장하였고, 언제나 양지만 좇았던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고 '수난당하는 언론'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에 영합한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직원들에게 연봉 5천만 원이 넘게 주게 된 부자 기업이, 지난 세월 독재 권력하에서 언론 민주화에 앞장서다가 해지되어 지난 20여 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낸 기자, 언론인들과 정치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월 60, 70만 원의 활동비에 만족해 하는 시민 운동가들의 세미나 토론들을 마치 정치 권력의 사주를 받은 보수 언론 죽이기 음모인 듯 몰아세운 이 기막힌 '사실 왜곡'과 '가치의 전도'가 이 공격적인 보도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은 "진보적 인사들이 주류 언론의 시각이 자신과 다르고, 또 보수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해서는 되는가? 과연 『조선』이 그렇게 잘못했는가?"라고 질책하듯이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판단 역시 『조선일보』의 프리즘으로 본 안티 조선 운동이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그것이 보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열린 사회에서 지켜야 할 게임의 룰을 어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세력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악마적으로 묘사하거나, 딱이감을 발견하면 마구 달려들어 물어뜯는 언론을 언론으로 대접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 언론은 정치 선전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저는 언론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기업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다른 사기업과 달리 국민의 생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 정보' 상품을 제공하는 존재이며 또한 공공적 책임을 갖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거나 자신의 고객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발견된다고 해서 지면을 그러한 내용으로 도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보수적 언론이 대기업에게 불리한 기사를 축소하고, 진보적 언론이 시민 운동과 노동 운동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확대와 축소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되 그것과 다른 입장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언론이 그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업 혹은 정당과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론이 시민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정글 세계의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조선일보』가 보수의 입장에 서되 자신과는 다른 목소리를 언급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5공 시절까지 『조선일보』는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공안 검찰·군부의 입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유신 체제나 5공의 등장을 '구국의 영단'으로 찬양하였지만, 유신 체제하에서 양심을 지키다가 죽거나 고문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줄도 보도한 바 없고, 광주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1986년 부천시 성 고문 사건이 터졌을 때 『조선일보』는 "급진 세력의 투쟁 전략 전술 일환 혁명 위해 '성' 까지 도구화한 사건"이라는 검찰의 발표를 여과 없이 표제로 뽑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후에도 『조선일보』는 피해자 권인숙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1986년에는 북이 건설중인 금강산댐을 터트리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고 외쳤습니다. 온 국민이 성금을 걷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성금은 어떻게 되었으며, 온 국민이 느꼈던 공포와 위기 의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나요?

『조선일보』 지상에서 노동 운동에 대해 약간이라도 온정적인 시각으로 쓴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학생 운동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으로 서술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나요? IMF 경제 위기, 오늘의 이 만연한 부정과 부패가 이들 세력 때문에 초래된 것인가요? 그런데 IMF 위기가 오기 전 과다 차입을 한 대기업과 감독 관청, 고위 공직 사회를 비판하거나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나요? 오히려 목사님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칼럼은 지나치게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가 발전과 안보를 위해 다른 형태의 국가 대란이나 부정 부패는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닌가요?

과거 『조선일보』에서 한국의 군부나 재벌의 내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십 년 혹은 수십 년 지난 뒤에야 밝혀지는 권력권의 비리, 기업 비리 등이 그 당시에는 왜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동시대의 모든 사실을 가감 없이 보도한다고 보십니까? 권력층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그들 자신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은폐됩니다. 자료가 파기되기도 하고 실수로 남은 자료가 나타나더라도 공개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20세기 들어서 많은 전쟁이 발생했지만, 전쟁의 실상은 아직 거의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한국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P통신이 무려 1년 이상 한국측 노근리 피해자들을 만나서 취재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도 한국 신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자체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수십만의 민간인이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생존자가 있고, 미국측 문헌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 신문의 기자들은 기자 회견 석상에 나와서 취재도 했지만 그 사실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혼란을 막기 위해 그것을 보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실의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도움을 주는가요? 공개를 통한 사실 확인과 국민적 화해를 위한 노력이 진정으로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는가요? 그들이 국가 안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보인가요, 아니면 진실이 공개되면 엄청난 도덕적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특정한 개인과 세력의 안보인가요? 비록 50년 전의 일이지만 무고

한 민간인 수십만이 우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엄청난 사실이 일개 대학 교수가 언론재단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 중 극히 일부보다 덜 중요한 사건인가요?

만약 목사님이 한국의 사회 운동 세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러한 이미지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박원순 변호사와 이석연 총장의 논쟁, 특히 이석연 총장의 '시민 운동 비판' 론이 신문에 대서특필될 예를 기억하시지요? 목사님 기억에 남은 것은 아마도 이석연의 시민 운동 공격이지, 박원순 변호사의 답변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조선일보』에 의해 부각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내용이 묵살되거나 축소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998년의 최장집 교수 사상 시비건은 『조선일보』가 얼마나 반지성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 교수의 논문이 『조선일보』의 시각과 맞지 않다면, 신문사 내의 한국전쟁 전문가나 『조선일보』 편에 선 학자를 동원해서 그의 시각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가 논문을 발표했을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그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에 올라서니까 그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리영희 교수는 공직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받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조선일보』가 무슨 자격으로 최 교수의 사상을 검증합니까? 그리고 최 교수의 생각이 『조선일보』 한 면을 도배할 정도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가져왔나요? 이것이야말로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이 아닌가요?

목사님의 기억 속에는 1970년대 말 『조선일보』의 유신 체제 옹호 보도, 1980년 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침묵과 왜곡 보도와 전두환 세력에 대한 일방적 찬양 보도, 1980년대 내내 『조선일보』 지면을 도배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 1990년대 여러 필자의 기고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내뱉은 각종의 색깔 시비 등이 없는 듯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러한 보도가 『조선일보』의 보수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색깔 시비는 단순한 김대중, 서

경원, 한완상, 최장집, 송두율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색깔 시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사회적 공민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색깔 시비야말로 1950년대 초 미국에서 그러하였듯이 상대방의 실제 생각과 판단을 공론의 장에 올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공직에서 추방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가장 야비한 공격 수단입니다. 사상적 순수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무슨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로지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만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사실상의 폭력이며, 비판과 논쟁의 여지, 사실의 제기와 반론의 기회를 봉쇄하는 반지성적 공격이 아닙니까?

색깔 시비를 개인적 문제로 보시는 목사님은 공격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반박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론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론을 편다는 것은 그러한 색깔 시비의 정당성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사상적 순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방식 자체의 파시즘적 폭력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색깔 시비는 당사자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모든 구성원을 향한 으뜸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흑백으로 이분화하여 그 순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반공 이념이나 자본주의 체제 혹은 기업의 활동을 비판하는 논리나 운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배 세력의 엄포이자 일방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즉 지하철 문 옆에 붙은 “잘 보면 보입니다”라는 표어처럼 국가를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고 대상이 되며 체포되어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그마한 일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거나 권리를 내세우려는 모든 세력의 목소리를 위축시키고,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갖기보다는 침묵과 굴종을 택하도록 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즉 『조선일보』의 표적은 한완상과 최장집 개인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거나 한국의 기득권 세력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견제하려는 모든 시민 사회 운동, 혹은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향하는 경고장이며,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살아가라는 노예화의 입력입니다.

시민 운동에게 색깔을 덧씌우게 되면 시민 운동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 운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생각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시민 운동의 견제를 받을지도 모르는 정치 세력이나 권력층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 운동이 과격 폭력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 사람들은 노동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노동 운동을 좌절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부도덕한 사용자의 입지를 안전하게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단순한 작업장 파업을 ‘불세비키의 음모’라고 몰아붙인 1920년 전후의 미국 극우 신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색깔 시비는 반드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 평범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후속 조치를 수반하게 됩니다. 즉 색깔 논쟁이 정치적 분위기를 압도하면 양심적인 지식인이 빨갱이로 둔갑하고, 급기야는 시민 사회를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언론을 정치 상품이 아니라 단순한 문화 상품으로 구입하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이러한 보도 내용이나 행태들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위봉법(殺威捧法)이라고 “한 놈을 붙들어 기를 꺾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수그러들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색깔 시비를 바라본 사람들은 ‘긱속 말의 시대’, 즉 모두가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말조심과 몸조심을 하던 1970년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반공주의 우익 이념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에 불타서 그러한 색깔 시비, 운동권 흠집 내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적인 세력의 등장에 위기 의식을 느낀 한국 수구 세력의 위기와 기득권 보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조선일보』의 보수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수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지성적 반언론적 방식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사용하는 반지성적 반언론적 방식은 온 사회의 의사 소통을 가로막으며 목소리 큰 사람,

힘있는 사람의 목소리만이 창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적인 목소리를 색깔로 덧씌우게 되면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내려는 용기를 좌절시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적색 공포'를 조장하는 편에 서서 일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불의에 침묵하고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진 채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만연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고발하려는 사람에게 색깔의 칼을 들이대는 사회에서 무슨 관용의 문화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생각과 달리 저는 보수 세력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해왔던 '굴종'과 '반칙', 부도덕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즉 식민지 권력,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던 세력을 보수라고 부른다면 그들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 식민지 권력, 유신 정권, 전두환 정권은 그 자체가 재판 없이 사람을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폭력 정권이며, 폭력의 그늘 아래 가공할 만한 부패와 부정을 자행했으며, 정치적 음모와 협잡을 서슴지 않았고, 기회주의자를 출세시켰으며, 양심적인 세력에게 고문과 억압을 가했습니다. 그 시기에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성 상실의 체제이자 도덕의 붕괴 상태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시절 걸음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에 굴종하고, 이후에도 그 사실을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무도덕과 회의, 불신을 일관되게 조장했다는 점을 새삼 사람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점과 흠이 많은 누더기 언론이 이제 돈을 벌어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흠을 지적하려는 운동이나 지식인들에게 그토록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한 계층이나 집단이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특권이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닐 때, 그 특권에 대항하는 조그만 비판도 실제보다는 엄청나게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생각과 이념이 다르기만 한 상대에 대해 이렇게 험악한 언사를 동원하여 색깔 시비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나친 공격성에는 언제나 콤플렉스가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세무 조사 이후 『조선일보』는 '비판 언론'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시키

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입지를 호도하는 대표적인 수사입니다. 목사님은 『조선일보』가 ‘권력을 가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판단이 문제라고 봅니다.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무슨 내용으로 비판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정부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조선일보』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약간의 부담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조선일보』가 자신의 고객이자 ‘현대판 군주’인 대기업의 문제점을 들추어 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개 기자가 그러한 기사를 쓰더라도 그것이 사주의 일인 지배 체제하에서 그대로 기사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세상의 권력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다고 본다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요? 중소기업 사장들, 상인이나 회사원들, 공무원들, 작가들에게 물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까? 정치 권력이 권력의 중심인 시절은 지났습니다. 정치 권력은 임기가 지나면 교체될 수 있지만 기업 권력과 언론 권력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정권의 독재가 무서운가요, 기업과 언론의 독재가 무서운가요? 오늘날 권력은 더 이상 정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은 지식 사회의 상식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정글의 법칙에 따르려는 유혹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시민 사회이며, 의사 소통 기구인 언론도 그러한 역할의 일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사회의 힘이 막강해도 정치가 정글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막기 어려운 법인데, 언론이 공론과 소통의 장이 되기는커녕 그 자신이 바로 정글 세계의 한 행위자가 되어 버린다면 사람들은 권력을 겁내듯이 이러한 언론 앞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가나 기업가는 모두 언론을 겁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지식인들은 언론에 잘 못 보이면 글 한 줄, 칼럼 하나 쓸 기회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말거나 할 수 있는 사람치고 언론을 겁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정치가를 욕하는 것은 거의 부담이 없는 일이지만, 재벌과 언론을 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일

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기고만장은 정치가와 지식인 들의 이러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말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힘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통될 수 있는 말이 특정한 내용만으로 제한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 면을 넘어서는 신문지 중에서 선정적인 내용과 기업 관련 정보는 넘쳐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민과 끊임없는 고용 불안에 떠는 노동자의 하소연은 전혀 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이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또 파업인가”, “불법 파업은 엄단해야 한다”, “파업이 좌익 세력의 시주를 받고 있다”는 식의 공안 당국의 목소리를 신문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한다면 그것을 받아보는 노동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언론 보도를 보는 농민과 노동자의 한은 경찰에게 곤봉 한 대 얻어맞는 것보다 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좌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 막힌 사회의 민중들의 한(恨)은 권력에게 당한 한 이상으로 사회의 활력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과 지능은 지나치게 억눌린다는 라스키(Laski)의 지적은 한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사회에는 그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소수가 자본과 정보력을 독점함으로써 다수의 염원과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그 사회는 만성적인 불안과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50년 전 제헌의회 때나 30년 전 유신 때나, 오늘의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와서도 정치적 혼란과 정치적 불신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 버리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언론은 그 때나 지금이나 정치가 개인을 타하면서, 그렇게 된 원인은 전혀 들추어내지 않은 채 문제를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요?

목사님, 저에게 항의 전화한 네 사람이 모두 경상도의 50대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기사가 김대중 정부에 대해 부정

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오냐,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죽이기 위해 이러한 것까지 하는구나”라고 흥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면 제가 지나친 것인가요?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상도 사람인 목사님은 김대중 정부를 싫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모두가 용기 있는 비판 행동인 것으로 보이고, 김대중 정부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집단, 특히 시민 단체는 모두 한 통속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모든 개혁적인 운동을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덧씌우면서 참과 거짓, 그리고 개혁과 반개혁의 차이를 희석시키는 주류 언론의 의도가 먹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선일보』는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30여 년 동안 각료나 고위 공직자 중에서 경상도 출신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친절하게도 개각 때 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이며, 부산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보도인 것은 틀림없지만, 기사의 선택은 교묘하게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보도의 외양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갖는 효과는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큰 범죄를 저지른 권력층도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는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역공을 하는 일도 많지요. 만약 그들의 주장이 공감을 일으킨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기준은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 조사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즐기와 가지’는 구분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 일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붙인다면 목사님은 장차 누구에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그러한 희망들을 모두 정치적인 색깔로 덧씌움으로써 허무주의를 가중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좋은 뜻을 갖고서 옛날부터 반부패 운동을 한 집단이나 개인을, 김대중 정부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그 작업을 시작했고 또 그 개인이나 단체가 제안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그들을 김대중 정부의 돌격대라고 공격해 낸다면 앞으

로 누가 반부패 운동에 나서겠습니까? 언론이 모든 개혁 작업을 그런 방식으로 공격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가치 기준의 수립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언론이 이처럼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 '먹이'를 발견한 동물처럼 마구 달려들어 물어뜯고, 사실 왜곡, 거두절미(去頭截尾), 침소봉대(針小棒大)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세력의 이익 확보를 은밀하게 도와 주고, 정작 논의되어야 할 의제를 상징하지 않은 채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인간 사회의 덕목은 찾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정글 세계의 행위자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점과 관계된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 사회가 그러하지만 한국의 언론 역시 지금껏 법의 채찍과 도덕의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분단, 군사 독재에 이르는 세월은 폭력 수단과 돈을 가진 존재가 세속 사회에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군사 독재와 물질 지상주의는 바로 정글의 법칙이 가장 활개를 펼 수 있었던 게임의 장이었습니다. 강자에게 굴종하고, 상대방 죽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으며, 소외된 자와 약자의 피울음에 귀를 기울여 오지 않았던 한국의 일부 언론이 이제 시민 사회의 윤리와 소통의 기회 확대보다는 생존의 본능과 무차별적 이윤 추구 논리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업으로 변신하였는데, 누가 어떻게 과연 그들의 야성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과거 군사 정권의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수백만의 생각을 좌우하는 '말의 힘', '이미지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언론인 나시아 라모네는 정보를 얻는 데는 공을 들여야 하며, 민주주의적 삶에 현명하게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랜 민주화 운동의 희생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언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거대 언론의 횡포를 바로잡고 언론이 소통의 기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제와 비판의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단순히 한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와 경제가 정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시민 사회가 맹목과 침묵 속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이러한 위험성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더 높은 각성이 요구되고, 목사님과 같이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볼 때 유리창을 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반드시 조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유리창을 닦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으며, 조명이 어디를 비추는지 살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실제 세상과 부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의 조장과 색깔 논쟁이 없는 21세기, 막힌 것이 없고, 말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열린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만 저의 편지를 끝내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